

‘서울-지방’ 정시 경쟁률 격차 0.40 대 1... 5년간 최소 수준

서울 앞지른 ‘대구·경북권, 충청권’
서울권 지원자수 전년대비 1.0% ↓

지방권 학생, 서울 거주 비용 감안
경쟁력 있는 지방권 대학 선택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권과 지방권 대학의 경쟁률 격차가 0.40대1까지 좁혀지며 최근 5년 새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권 정시 경쟁률은 5.61대1로 최근 5년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냈고,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평균 경쟁률이 서울권을 앞서는 이례적인 흐름도 확인됐다. 취업난과 경기 침체 속에서 수험생들이 비용 부담과 실리를 따져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눈을 돌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권역별 평균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6.43대1, 충청권 6.30대1로 집계돼 서울권 평균 경쟁률 6.01대1을 넘어섰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의 평균 경쟁률이 서울권을 앞지른 것은 최근 5년 새 처음이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서울 거주비용 부담과 지방권 경쟁력 대학 지원 증가로 서울·지방 대학 경쟁률 격차가 줄어든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지원자 수 흐름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2026학년도 정시 전체 지원자수는 서울권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경인권은 5.1% 증가, 지방권은 7.5% 증가했다.

지방권에서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 수는 2022학년도 60곳에서 2023학년도 55곳, 2024학년도 49곳, 2025학년도 43곳으로 줄었고, 2026학년도에는 20곳까

지 급했다.

정시 지원자수 기준으로는 전국 190개 대학 중 중앙대가 1만14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천대(글로벌) 1만1307명 ▲성균관대 1만296명 ▲건국대 1만042명 ▲한양대 9860명 순으로 많았다.

정시 경쟁률(모집인원 300명 이상 대학 기준)은 ▲서경대 15.49대1 ▲백석대 10.34대1 ▲계명대 9.99대1 ▲건국대(글

로컬) 9.94대1 ▲가천대(글로벌) 9.33대1 순이었다. 상위 5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지방권 대학으로, 정시 경쟁의 무게중심이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방권 대학 가운데 지원자수가 많은 대학은 지거국에서 ▲부산대 7551명 ▲경북대 6494명 ▲전북대 6292명 ▲충북대 5759명 ▲경상국립대 5568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권 사립대는 ▲단국대(천안) 6212명 ▲계명대 5864명 ▲순천향대 5522명 ▲영남대 4826명 ▲고려대(세종) 43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상당수 수험생들이 서울 하위권 대학보다 지방권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권 명문대가 아닌 경우, 서울 진학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 비용 부담을 감안해 거주지 인근에서 원하는 학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권 학생 일부는 불수능 영향 등으로 경인권 소재 대학에 하향 지원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권은 정시 모집 미충원으로 추가 모집에 나서는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권 추가모집 규모는 ▲2022학년도 386명 ▲2023학년도 767명 ▲2024학년도 604명 ▲2025학년도 668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방권은 미충원에 따른 추가 모집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이다.

정시 선발 인원과 지원자 수를 종합할 때 정시 불합격자 수가 늘어 2027학년도 N수생이 전년 대비 약 7%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구도라는 전망도 나왔다. 종로학원은 정시 선발 인원, 지원자수, 정시 탈락 규모를 연도별로 비교해 이 같은 흐름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취업이 서울과 지방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수험생들의 선택 기준이 실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라며 “지방대학 집중 육성 정책과 공공기관·공기업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경우 지방대에 대한 인식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북한배경학생 ‘배움·정서·진로’ 지원

서울시교육청, 오늘부터 3박4일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 운영
교사-학생 1대1 연결 맞춤형 멘토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경기도 일대 수련원에서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는 2005년 시작돼 올해로 32회를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여 년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교육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북한배경학생 2389명과 교원 2052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291명 등 총 4732명이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북한배경학생의 기초 학습 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 진로 역량 함양을 지원해 왔다. 이번 겨울방학학교는 북한배경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을 1대 1로 연결하는 맞춤형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습 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결합한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배움으



2025 북한배경학생 여름방학학교 모습. /서울시교육청

로 자신감 UP!, 꿈으로 미래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 희망 교과 중심의 1대1 학습 지도 ▲정서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자기 이해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 활동 ▲협력과 소통 중심의 체험·프로젝트형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대 1 학습 멘토링은 학생 개별의 학습 수준과 결손을 세심하게 파악해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멘토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정서적 안정과 신뢰 형성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에 참여한 멘토교사들은 방학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육적 보람과 성찰의 의미를 함께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 멘토교사는 “멘티 학생과 함께 공부하며 오히려 교사로서의 시선이 달라지는 경험이었다”며 “학생에게 믿음을 주는 멘토가 됐다는 보람과 함께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북한배경학생 방학학교는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한 아이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가능성을 존중하며 배움과 진로, 삶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료 감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적용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내일 ‘국지도 86호선~화도’ 개통

도로 안정성 강화, 사고 예방효과 기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4.3km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전격 개통된다. 와부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9분 줄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가 최근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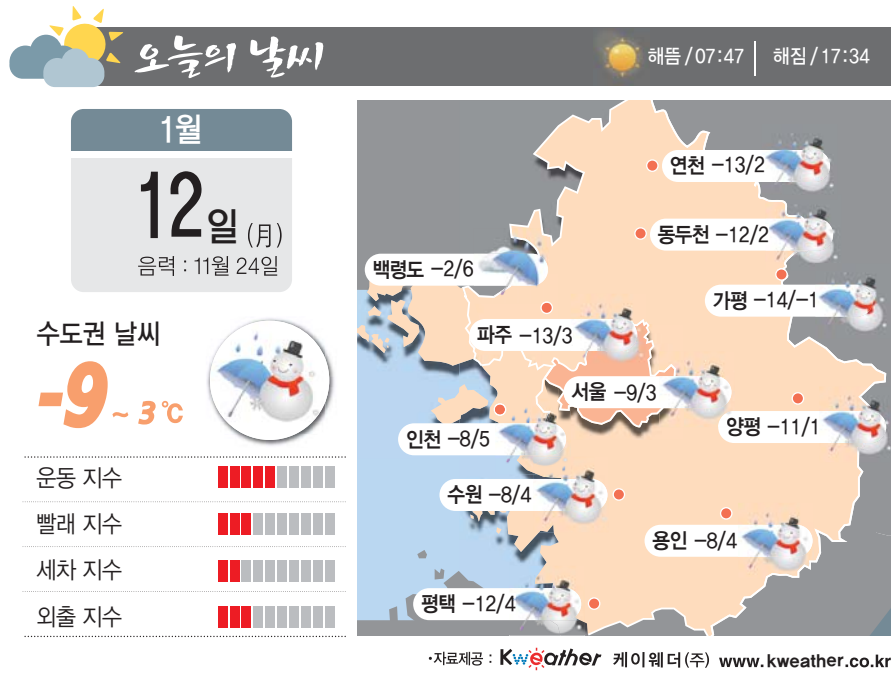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km 길이의 2차로로 총 9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

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 개통으로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이나 인근 시군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도 45호선과도 직접 연결돼 북한강변 주변 관광지와 지역 산업 시설의 물류 수송 효율이 높아져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제1, 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는김용택 기자 mk4303@



▲ “미성년자 성적 묘사”...인도네시아, 머스크 A I ‘그록’ 전면 차단 /사진 뉴시스
▲ 日 언론 “한일정상회담, 美·中 우선주의 속 ‘결속력’ 시험대”

▲ 이란 시위 2주...“최소 116명 사망·2638명 체포”
▲ EU, 이란 반정부 시위 지지...역류자 석방도 촉구

▲ 미국무부, 베네수엘라의 미국민들에 “전원 즉각 철수” 경고
▲ 美 “베네수 원유 수익, 美 계좌에 예치...제3자 압류 차단”